

또한 이 작품은 사회 체계의 변동과 더불어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내외적인 구조 및 관계의 변화가 전통적인 가족공동체까지 해체되는 양상으로 발전하여 사회구조의 근본을 흔들게 됨을 보여주었다. 즉 사회의 갈등과 모순이 가족에까지 침투해 전통적 가족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현대사회에서 가족해체 위기는 구시대의 질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적 추세에 밀려서 생긴 것임을 알 수 있다.

윌리는 가족에게 있어서 남편이고 또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가장의 위치를 소망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사회인 가정에 자신만의 가치관을 주입함으로써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구성원들의 개별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해와 동정이라는 전통적인 가족애의 결핍으로 서로 결합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가족공동체는 해체라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지게 된다.

윌리는 윌리의 회상을 통해 전통사회와 산업사회를 대비시키며 사회인으로서 가족의 가장으로서 흔들리는 자신의 위상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다 자살로서 산업사회를 고발하는 소시민을 그렸다. 사회에서의 퇴출과 가장의 죽음을 전통사회의 붕괴 또는 해체로서 의미를 부여하며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의 비극으로 해석의 장을 확대시켜 볼 수 있다는 점에 이 작품의 위대성이 있다고 하겠다.

15. 『밤으로의 긴여로』에 나타난 소외의식와 자아인식

영어영문학과 최 경 환
지도교수 박 옥 선

이 논문의 목적은 오늘의 『밤으로의 긴여로』에서 타이론가의 구성원들 각자에게 어떻게 소외의식이 나타나고, 그 소외의식이 자아인식의 과정을 거쳐 극복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II장에서는 이 작품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오늘의 소외 주제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으며, III장에서는 이 작품에 나타난 소외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먼저 형, 제이미의 다른 가족들과의 의사 소통 부재를 들었으며, 이로 인한 가족간의 대립과 소외현상을 설명하였다. 두번째로 아버지 타이론의 물욕이 가족들을 소외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과정을 설명하였고 세번째로 어머니 메어리를 중심으로 자아의 갈등과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IV장에서는 소외극복을 위한 자아인식의 과정을 나타냈다.

소외가 인간 존재의 필연성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소외를 이해, 연민, 애정 등과 같은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내면적 힘들로써 극복하는 일 또한 인간 존재의 또 하나의 필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최악의 상태에서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오늘날은 우리에게 인간애와 인본주의를 제시하지 않았나 싶으며, 인간애와 인본주의야말로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진실이다.

16. 부산지역 근대초기 기독교 전래와 파급과정

동아시아학과 객 동 훈
지도교수 구 모 룡

부산지역 기독교 전래는 한국이 일본에 의해 1876년 개항이 이루어지고, 뒤이어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들이 출입하기 시작하면서 타의에 의하여 근대화의 서곡이 시작 될 무렵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에 의하여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초기 기독교가 부산에 전파되기 시작한 부분을 문헌 등을 통하여 연구하여 기술하며 미국 북장로교와 캐나다의 복음 전래의 타진과 호주 장로교의 전래 상황을 집약시켰다.

특히 호주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부산진 교회와 미 북장로교의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초량교회 설립 역사 논쟁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부산지역 교회사가인 고신대 이상규 박사는 양쪽 모두 순전히 인위적인 역사관으로 교회사를 발간하여 주장하고 있다고 부정하고 있으며, 해당 교회에서는 이 논지에 결코 동의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필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안목으로 접근하고 특히 교회사를 성경과 선교사들의 활동 등을 토대로 추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제는 논쟁과 갈등의 구조가 불식되고 그 힘을 교회 성장과 선교에 집중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선교사들에 의하여 전래 된 복음은 선교 역사가 진행되면서 토착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과 특히 자국민에 의해서 교회가 이 땅에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정황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백만구령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부산·경남 호주 선교부 담당지역에 1930년대 까지 무려 332개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선교부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는 1941년에 일본에 의하여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강제 철수당한 것이다. 그들에 의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자국민 중 주기철 목사는 일본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순교(1944.4.21)까지 하는 삶을 살았는데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유리한 조건에 있으면서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